

“깨달음 통해 삶의 성장 이뤄야”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③ 대학생들이 말하는 ‘인생’

인생은 눈술

인생은 눈술 문제처럼 주어질 답이 없다.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소신 있게 인생을 써 내려가면 되는 것이다.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남들의 생각에 따라 갈 필요도 없다. 그러나 자유로운 가운데에서도 글을 써 내려가는 기준은 있다. 자유롭되 지킬 것은 지키는 인생, 그게 바로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인생은 와인

인생은 와인처럼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느낄 수 있는 것이 많다. 태어났을 때부터 나이를 먹어가면서 지식을 배우고 경험을 넓혀가면서 삶은 점점 풍부해진다. 오래된 와인처럼 나도 늙을수록 깊고 지혜로워지고 싶다.

인생은 꿈을 이루는 것

인생을 고통이라고 한다.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므로. 그러나 손 놓고 한탄만 해서 안 된다. 살아가는 가운데 반드시 이루고 싶은 꿈이

가일이 익어가는 계절에 우리 마음도 성숙하길 바라며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인생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한다.

있어야 한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순간순간 겪는 고통을 이겨낸다면 그 자체가 감동이고 행복일 것이다. 노력과 고생이 크다 해도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기쁨이고 보람이다.

인생은 결심

인생은 우리 각자의 결심에 달려있다. 대학생인 우리에게 같은 여러 가지가 열려있는데 어떤 길을 갈 것인가는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굳센 의지를 가지고 삶의 방향을 결심하는 것이 관건이다.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그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경영하느냐에 따라 자기가 그려가는 그림이 인생살이다.

인생은 배움

인생은 배움이다. 공부만이 배움의 전부가 아니다. 매일 생활하면서 느끼고 깨닫는 모든 것이 다 배움이다. 전철 안의 잠산인에게서도 배움 점이 있는 것이고 구두만 닦는 구두닦이에게서도 배움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매일매일 배워가는 것이 인생이다.

인생은 마음 공부

인생을 살아가는 근본은 자기 마음이다. 물론 겉으로 드러난 능력, 외모, 부, 환경 등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것들도 마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자기 마음의 역량만큼 세상을 섭수하고 삶 속에서 지혜를 찾게 되고 행복을 느껴가는 것이다. 마음으로 공부하는 것이 인생이다.

종교는 삶 속에 있는 것

“세상에 태어나서 살림을 하고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종교이다”라는 말씀처럼 불자의 깨달음도 일상생활과 틀어 아니고 오늘의 실천 속에서 피어나야 함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신앙계시판

●월정사 오대산 불교문화축전=평창 월정사가 10월 5~7일 제4회 오대산 불교문화축전을 개최한다. 개막식은 5일 오후 6시, 이어 신시음악회-공생과 희망이 오후 6시 30분부터 월정사를 음악으로 수놓는다. 자장 율사 개산다례제, 어린이 불교동요배우기 및 경연대회, 불교합창단 친불가 경연대회, 부처님 진신사리 이문식 및 한다레, 전통불교문화공연, 월정사 탐방이, 제회 전국승가학인 법고대회, 마임이스트 유진규의 '강원의 미래'를 위한 퍼포먼스 등이 5일 마련되어 있다. 6일에는 오대산 비로봉 등반대회, 제3회 오대산 디지털 사진 촬영대회, 옛길따라 숲속 여행, 지역놀이 한마당, 신사의 제사의 만남, 신사 영화제 등이, 7일에는 제4회 문화관광부장관상 청소년 백일장 대회 및 사생대회, 오대산 천년의 숲의 명상적 가치에 대한 심포지엄, 청소년 어울마당 등이 방문객들을 기다린다. (033)332-6661

음악회가 영평사를 아름다운 선율로 감동, 30일에는 영평사 합창단이 음성공양을 한다. 10월 6일에는 공주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어르신 잔치도 준비한다. 7일·13일에는 7080 작은음악회, 14일에는 청소년 1000여명이 모여 중앙절 놀이 행사와 구절초 화전부치기, 전통놀이 체험 등을 하는 청소년 마당이 청소년들을 반긴다. 이 외에도 10월 21일까지 이어지는 축제기간 동안, 구절초사진 전시회, 구절초 무료시음회, 바자회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041)857-1854

●법어사 선문화 축제=법어사 10월 12~14일 '개산 132주년 선문화축제-행복참선으로의 초대'를 진행한다. 불자대상을 수상한 탈렌트 강부자씨가 출연하는 '행복불자'를 시작으로 법어사 박법선 명지대 명예장학자와 교수가 강의하는 '명사 초청 행복불자강연' 등으로 이어진다. 합창제, 신시가족음악회, 불무도 체험, 한국전통문화 체험, 법어사 가람순례 선문화 체험, 가족사랑 명상인기대회, 의상 대사 백일장 및 사생대회, 대박, 사찰 선자 다과체험, 각종 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도 마련되어 있다. (051)508-3122

●조계사 창건 97주년 맞이 '심보일배' 고행정진서를 소개사가 창건 97주년을 맞아 '성역화봉사 원만 성취를 기원하는 심보일배 고행정진'을 진행한다. '심보일배 고행정진'은 10월 3~5일 설악산 영사암에서 적멸보궁이 모셔져 있는 봉정암까지 '심보일배'를 할 계획이다. 이번 심보일배를 통해 조계사는 민족자존 및 불교의 미래와 문화정착을 염원했던 창건 당시 선사들의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로 삼았다. 목표다. 동참금은 10만원, 숙식 및 보호 장비를 제공한다. (02)732-2187

●통도사 금강산 성지순례=강산 통도사가 10월 31일~11월 2일 금강산 성지순례를 떠난다. 내금강의 불교 문화유적과 풍광을 접할 수 있는 성지순례이다. 첫날 신계사 참배 후 불배날 구룡연·만물상·삼일터 또는 해금강 코스 관광이 기다리고 있다. 법가일터 참배 후 고예단의 흥겨운 기예도 관람할 예정이다. 접수마감은 10월 11일까지. 동참비용은 55만원이다. (055)382-7182

권경희의 상담심리학과 불교 <30>

정신분석과 불교-10

사회심리학자인 에리히 프롬은 정신분석과 선(禪)불교를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세계에서 인간의 위치, 즉 인간의 분리성·고독성·무력성 등이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이러한 것은 견딜 수 없도록 무거운 짐이어서 그 압박 때문에 인간은 산산이 찢겨져 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권력이나 돈을 추구하거나 우상에 의존하거나 자기애적인 보상적 기제에 의해, 즉 불구가 됨으로써 이런 결과를 회피하는 데 불교하다고 했다.

즉 인간은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누구나 잠재적인 정신 이상자라는 것이다. 프롬은 이러한 인간이 잠재적인 정신 이상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세계에 대한 충실한 생산적 반응이며, 그 최선의 형태는

잠재적 정신 이상 근본적 해결책은 ‘開悟’ 禪·정신분석 공통점 ‘무의식→의식화 작업’

개요(開悟)라고 말했다. 프롬은 정신분석과 선의 외면적인 유사성을 다음과 같이 보았다.

첫째는 욕망의 극복이다. 즉 선의 목표에 이르는 하나의 조건은 소유욕이나 명예욕 등 어떤 형태의 욕망이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며, 정신분석에서도 탐욕적이고 잔학하고 인색한 지향성에서 적극적으로 독립적인 지향성으로 발전되어 감으로써 건전한 품격을 가꾸어 나간다.

둘째는 권위로부터의 독립이다. 프로이트는 종교를 비판했다. 그 주요 이유는 종교의 본질이 본래 도움을 받거나 벌을 받던 부친에게 의존하는 대신 신에게 의존하려는 미망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불교는 신도 없고 어떤 형태의 비합리적 권위로 없는 종교다. 불교의 주요 목적은 바로 인간을 모든 의존

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며, 자기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자기의 운명에 대하여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셋째는 안내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선불교에서는 스승이 수행자로 하여금 자신의 경험을 통해 목적에 달성하게끔 이끈다. 정신분석학에서도 환자가 분석가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획득하는 지점까지 안내의 역할을 한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타인의 영혼을 구제해 줄 수 없다. 인간은 오직 자신만이 자기를 구제할 수 있다. 선불교에서도 정신분석에서도 다른 사람이 스스로를 구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다.

넷째는 한 쪽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선에서는 화두를 주어 수행자가 인습

적인 사고 속으로 도피하려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정신분석가도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한다. 분석가는 환자가 더 이상 도피할 수 없을 때까지 환자의 자기 합리화를 하나하나 빼앗아 결국에는 환자의 마음을 채우고 있던 허구를 깨뜨리고 실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위와 같이 비교하면서 프롬은 선과 정신분석은 무의식적인 것을 의식화하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선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세계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완전한 파악, 나 자신과 우주와의 관계 자각, 즉 ‘우주적 개요’인 반면, 정신분석학에서는 억압상태의 극복, 본능(id)을 자아(ego)로 대체시키는 것, 즉 ‘인간 체계 내의 개요’라고 했다.



그림 : 문병성

자연, 그 순수한 아름다움을 담은 가구

마지막 남은 소나무(육송) 茶心마루 공장직판 도매가세일 한정판매

자연의 향기를 담은 한잔의 차처럼... 현대인의 심신에 휴식을 전하는 원목가구 - 다심마루

구분	크기(mm)	판매가(원)	할인가(원)
육송좌탁	1200×600×300(소)	300,000	160,000
	1300×770×300(중)	400,000	200,000
	1500×770×300(대)	500,000	260,000
	1800×770×300(특대)	600,000	300,000
침대	2100×1700×320	2,000,000	1,400,00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시중에 일부 유통되고 있는 무늬목 좌탁과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 ▶ 육송좌탁은 완전 수공 짜맞춤 방식으로 만들어진 명작입니다.
- ▶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고 100% 수작업으로 제작.
- ▶ 소재 : 우리나라 토종 소나무 육송(순향목) 사용
- ▶ 사용 : 지탄, 거실의 좌탁, 소파대용 의자, 개인침대, 학생공부상, 저상형 등
- ▶ 사용법 : 물걸레질이나 가늘고 부드러운 천으로 기름칠(등기름)을 해주면 나무가 기름을 흡수하여 윤기가 돌고 손때가 묻으면 반질반질하게 쓸수록 그 가치가 더해집니다.

주문처 080-999-1080
입금계좌:농협 177483-51-071977(예금주:천소현)

기적의 파스요법 창시자 남산스님의 기혈수비법

팔사 · 발란스 테이핑

물소볼 팔사 10cmX7cm(15,000원)
물소볼은 제작된 팔사는 수공으로 직접 만들어 부직물이 없다. 관절염과 비만, 변비, 갱년, 활액순환, 당뇨병, 고혈압, 전두를 제거에 팔사를 사용하는 방법은 아래쪽으로 자연스럽게 45도 각도로 붙여준다.
또한 굳은 자리에 붙은 피멍이 드는 것은 부직물이 아니라 나쁜 사기 나오는 것으로 며칠이 지나면 사라진다. 매일 30회씩 팔사를 피부 안쪽에 시 바깥쪽으로 붙여준다.

기혈수비법이란?
“기적의 파스요법” 창시자로 유명한 남산스님이 이변에 몇 십년 동안 대체의 방법으로 꾸준히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증을 하여 얻은 결론들을 토대로 기혈수비법을 공개한다고 해 화제가 되고 있다. 기혈수비법 중에는 교혈압과 관절염을 가정에서도 쉽게 해결하는 방법과 위장병 당뇨병 왜 못치는가? 마음대로 먹고 운동 안해도 뱃살이 빠지는 비법을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집에서 간단하게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발란스 테이핑 5cmX10m(25,000원)
정형외과나 한의원등에서 많이 쓰이는 테이핑 요법이다.
테이핑을 붙이기 전에 부위에 따라 15cm 간격으로 잘라놓고 어깨결림, 관절, 오십견, 좌골신경통, 근육통 등은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안쪽에 바깥쪽으로 붙여주어야 한다. 또한 피부를 깨끗하게 닦은 뒤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녀 남산스님 명상국립원리/교 10,000원

국부카르마 문의:080-999-1080 우체국 601161-01-005632(예금주:불타암)